

학술기회

노정권은 학원침탈 즉각 중단하라

학회·문화회 폐쇄성 극복 시급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

< 6 >

1. 문제의식

87년 이후 일관되게 진행된 '자주적학생회 건설운동'은 89년 시업의 평가를 통해 '토대의 취약'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고집하며, 과학성회를 중심으로 중·하부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학생회에서, '삶의 터전'으로써의 학생회로 입구어 내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학우들의 자주적 저항과 요구를 담아낸 다양한 소모임의 건설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본인포에'에 기초한 총회투쟁으로 정서화 되는데, 먼저 우리 학생회의 실정을 보도록 하자. (이들은 소모임에 국한하기로 한다)

과학성회의 조직수준은 전체 학우의 1~5% 수준으로 대개 지역학원에 치중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방식은 대개 문화(노래, 풍물, 연극등)와 학술등의 소모임으로 되고있다. (예외적으로 단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성회와는 별도로 학교차원의 동아리를 통하여 문화·학술등의 저항과 요구를 담아내고 있는데, 과학성회(소)모임과 동아리와의 연계 수준은 매우 낮다.

어쨌거나 이들(소)모임들은 활동을 잘하기 위한 자기 내용과 체계를 갖고 현재 학생회 활동의 기간 동력으로 되는데, 공통되는 것은 활동이 전면적이 못하고 각개약진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이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임들이 분명한 자기 방향, 즉 학생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활동을 전진화하며, 보다 광범위한 학우들의 참여와 효율적인 체제적인 조직활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굳이 계열, 부분활동이라고 하면 매우 일찍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학회

청년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청년으로서의 진취성, 불의에 대항하는 비판의식과 학생으로서 학문적 진리에 대한 강한 탐구심을 들 수 있다.

이는 청년학생에게 학문적 탐구활동이 대학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고 일차적인 목적임을 알게 해준다.

◇글 쓰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
4. 회조직 골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부의 문제
- 계열체계 I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
- 계열체계 I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8. 총평-정리

그러나 우리 학생회 활동은 학우들이 갖는 일차적 저항인 학문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과를 기본으로 많이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상층 간부들은 중심이 다른데 있는 듯 하다.)

학회는 학문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우들의 자주적인 모임으로 다양한 학문의 영역만큼 다양한 주제, 소재로 결성되고 활동한다.

(참고로 87년 이전에 군대를 갔다 복학한 학우들은 '학생회'와 '학회'를 구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회라는 명칭을 걸지는 않았더라도 과학성회의 문화부, 학술부, 선전부 등의 각 집행부서는 실제 활동에 있어 교양 혹은 문화학회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학회라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압도적 다수에 의해 정화함으로써, 자주적 학회건설을 비약시켜 별 관련이 없다.

3. 선전·문화계열

자주적 학생회의 기초가 학생대중들의 다중다양하게 제기되는 이해와 요구를 학생회체제내에서 담아내려고 했을 때,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선전과 문화의 체계일 것이다.

기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품목과 학생회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학생

동학의 선전체계는 사람을 지치게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고민을 못하게 하고 있다.

중앙단위의 언론출판협의회와 조속한 구성과 단대·과의 선전·편집·홍보부를 포괄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꾸리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지도체계는 단위의 사업에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속에서 좀더 실무적이고 창조적인 선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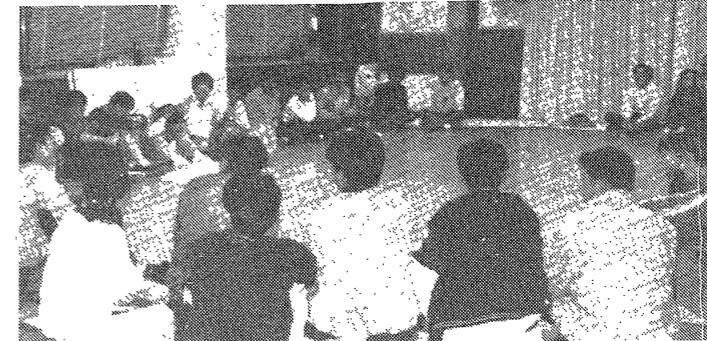
문화계열에 대한 마관까지다.

수업이 많은 과의 노래, 풍물, 그림, 그래프 등의 소모임도 중점, 획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계열은 대학문화가 갖추어야 할 민족자주성, 승미사대주의 배격등 생활문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하고, 그것은 동아리 차원의 분산된 역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과단위, 단대단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품목과 학생회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학생

기학취재 어용·무능교수 사례를 찾아 심지어 학생죽음까지 유발



김행자 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분관 점거 농성중인 건대생들.

"영속하는 한교수의 비인격적 언사와 행동에 의해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건대의 사활로 생각합니다"라고 건대 생활문화회 학생회장 문해민(가정관리학과)은 단호하게 말한다.

지난달 19일 서영숙(가정관리학과)이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원인은 작년 6월 도서무단발행이 문제가 되어 학과장인 김행자(가정관리학과)교수가 1년동안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 예를 들면 수업시간마다 교수

수능교수의 규정에 있어 단순히 주관적인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과학적입장에서 규명되어야만 합리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학원이나 다 안고 있는 문제이며, 그로인해 받는 학습의 저하, 비인격적 품성에서 유발되는 학생들의 정신적 장애등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가는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본교에서도 일본과, 인철과, 교육학과에서 제기

대부분 학교... 무능교수 편만 들어 품성고려한 '공개채용' 정착돼야

수행능을 지칭하여 '도서무단발행은 도둑질과 같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등의 힐책을 해 이에 참다못해 벌어진 참사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생활 문화회 학생들은 김행자교수의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김교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계수없는 일로 일축하며 응하지 않아 지난 11일 분관 점거농성, 전국대 건 단대대의 연대투쟁에 들어갔다. 김교수 사퇴요구는 교수서명운동의 죽음에서 제기된 불발적인 것이 아니라 1985년도 제기된 바 있던 김교수의 어용·무능성이었다.

김교수의 행동은 신변장기의 에기를 늘어 놓고, 말도 없는 전공과목의 내용은 재복란 있는 정도였으며, "음성공 찾는데 주민들은 쓰레기같은 것들..." 등의 발언을 했던 교수로서 비교육, 비인격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

건대생들은 김교수를 흔히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교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강의실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부실로 인해 그 수업이 신변장기로 시정일관하고 있다거나, 논문등의 연구실적이 없거나,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없이 무조건 정부의 입장에서 옹호한다거나, 비인격적 품성에서 풍기는 언행이나, 강의는 하지 않고 보충교재만 펴낸다는 하는 등이다. 여기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용

수능 교수의 규정에 있어 단순히 주관적인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과학적입장에서 규명되어야만 합리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학원이나 다 안고 있는 문제이며, 그로인해 받는 학습의 저하, 비인격적 품성에서 유발되는 학생들의 정신적 장애등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가는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본교에서도 일본과, 인철과, 교육학과에서 제기

사회과학 일변도 학회풍토 지양돼야

단대·과 포괄하는 선전지도체 건설절실

과단위 부서의 생활문화운동 요구돼

다양한 학문활동을 위한 모임은 꾸리고,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모임들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생회를 든든하게 세워내려면 학우들의 일반적 요구인 학문활동에서부터 출발하여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문활동을 위한 다양한 모임, 즉 학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먼저 간부들의 넓은 관점을 고쳐야 한다. 간부들의 모습을 보면 "x x 가두투쟁에 10명밖에 안나갔어!"라고 얼굴을 붉히며 장외에 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학우들이 경청하는 강의시간에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더라도 그 어느 간부가 부끄러워 하는가? 돌아보자! 여기에 학문활동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이 시작이다.)

학회의 연구활동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연구를 위한 기본적 관점과 인식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학회의 연구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과학교육(소위 운동권교육)의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학회의 다양한 활동에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동참함으로써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선봉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학회의 모든 활동은 학생회로의 분명한 단계를 통해, 학생회는 내용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학회의 대중적 활성화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초석으로, 비현실적인 제도교육을 개정할 교과과정 개정의 힘, 즉 학원지주와의 투쟁한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생활사업의 공개,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알려내는 기능을 가지게 그 영역과 분야가 매우 넓다.

우선 말할 수 있는 학내의 대안론과 단대 선전부, 편집부 그리고 과단위의 홍보부등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선전부가 그야말로 대자보이고, 유인물만 만드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학생들을 학생회공간으로 끌어 유두하는 것이라고 생각 해온 것이다.

선전은 잡일인가, 몸으로 때우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 동학은 이치러운 대자보와 알리는 유인물은 있었어도 메체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전물들은 선전물은 비교적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온 경향이 있다.

한편 한명이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이 생겨날 것이다.

4. 맺음말

사람은 스스로 흥미를 갖고 스스로의 지향점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선입성이 들어왔음에 편애적인 사회과학 세미나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양 교육하고 입, 학회, 취미생활)등을 마련하고 그 저변의 이해와 요구를 알아 나감에 비로소 학생회는 대중적 기반을 탄탄히 갖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1991학년도 교육실습예정자의 교육실습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니 대상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

1. 대상자: 교과과정 이수자('91학년도 4학년)
2. 신청자격: 가. 교과이수 명단이 문교부에 등재된 자 나. 교과 및 전공성적(전공기초 포함)이 각각 평균 80점이상 가능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간: '90. 10. 30(화)~11. 5(월)
4.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이부대학 교학과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대상자: 가. '90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 중 사범대학 및 교과과정 이수자 나. 실과계 지정학과(농, 임, 농업경제, 전기공, 토목공, 전기공, 건축공, 화학공, 석공공, 산업공학과: 81년 이전 입학자) 졸업예정자
2. 자격요건: 가. 교과이수자 명단이 문교부에 등재된 자 나. 교과 및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인 자
3. 접수기간: '90. 11. 1~11. 7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6. 검정료: W2,000(실과계 준교사 발급신청자만 해당됨)

사범대학장

동국보현회 창립발기문

귀의 삼보하옵고

1906년 한국불교의 선각들이 타오르는 불심과 정체를 모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세운 것은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구명하고 이를 널리 전수하려는 큰 뜻을 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교정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위대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80여년의 역사는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형성으로 민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이를 위한 교풍의 진작을 중시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동국대에서 동국의 건학이념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형성을 위한 기강이 확립되고 있는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동국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불자들은 비록 일시지탄의 아픔을 딛고라도 순수한 자외에 따라 우리의 힘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올바른 연수와 보살도의 참된 실천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동국사에 하나의 주체가 될 것을 천명코자 하는 자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의 실천으로 사랑과 봉사를 생활화 하며 용맹정진으로 높은 이상을 향하여 진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심대행원을 거울삼아 동국발전과 자아완성을 위한 능동적인 불자가 되고자 동국보현회를 창립하는 바입니다.

佛紀 2534년(1990) 10월 22일

동국보현회 회원일동 합창

동국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 불교경전 독후감 헌상모집

1. 대상: ①일반인 ②대학생 ③고등학생
2. 내용: 불교경전 중 백(경이 길면 일부분을 대상으로 해도 무방함) *고등학생은 도서관에 비치된 「불교경전」을 대상으로 해도 됨.
3. 원고의 분량: ①일반 및 대학생 200자 원고용지 20장 내외 ②고등학생 200자 원고용지 15장 내외
4. 당선작 및 교료: ①최우수작-1원, 교료 30만원 ②우수작-가. 일반부 및 대학부 21원, 교료 20만원 나. 고등부 1원, 교료 15만원
5. 제출기간: 1990년 11월 30일까지(단, 당일 우체국소인 유요)
6.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역경원 (우편번호: 100-715)
7. 당선작 발표: 1990년 12월 26일자 불교신문 및 개별 표지
8. 심사위원: 사계 권위자를 위촉하여 당선작과 함께 발표
9. 시상일시 및 장소: 1990년 12월 28일(토요일) 동국대학교 역경원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전화: 직통 267-8578, 교환 267-8131~9)으로 문의할 것.

동국대학교 역경원
동국역경사업진흥회

학생자가용 통학을 자제합시다

날로 늘어나는 학생차량으로 인하여 가뜰이나 협소한 교정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은 물론 신변안전에도 큰 우려가 있으며, 소음으로 인하여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대다수 동료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겸손한 자세로 자가용 통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오니 협조바랍니다.

1990. 10

학생처장 조병찬

사회보도

노동권은 학원침탈 즉각 중단하라

"사실상 헌법보다 상위법"

국보법 토론회 기조발제문

국가보안법이 48년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애국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과도기적 법안으로 탄생했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은 40여년이 넘게 존속되면서 수많은 국보법관련 구속자를 양산해냈다. 국보법철폐운동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마련돼 기조발제를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반 통일성-민중성 재인식 전국민적 철폐운동 절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



◇제야단체·학생 1백여명이 국보법철폐를 다지고 있다.

현실적 강제력이요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서 '북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폐지불가능하다는 논술논리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간첩'이라 불수 있다. △통일인사와 국보법안법=입중국(입국경우원사회의 사무국장) 문인환복사는 국보법 제6조인 말초, 절입과 제7조인 친양고부죄를 적용, 평양도 착 성명중 "나는 오래전부터 평양을 방문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싶었고..." 등의 일부 대화내용으로 친양죄를 적용했고 심지어는 김일성주석으로부터 선물(웃감, 산삼, 금강산 사진첩, 우표, 담배등)을 받은 것을 등법5조 금품수수죄에 적용하고 있다. 입국경전대대표는 '평양측준비위원회'가 전대협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국보법제73항을 적용했고 북한조선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보내온 평양측전 초정장을 받고서 출국한 사실을 제633항인 지령수수, 탈출죄로 적용했다. 또한 김대협에 관한 사항들을 말한 것은 군사사익공여(형법 제99조)에 적용되며 총성담파기는 대형 결계그림 '민중해방운동을 슬라이드로 제작, 평양측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의해 간첩으로 공소되었다. 정주영과 박철언은 통치권이라는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합리화되고 수백명을 몰살한 김대협이 사면되는 현실은 현실권이 통일보다는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국가보안법과 출판·사상의 자유=신형식(출판업협회대외위원장) 전제에서 대한민국처럼 출판활동을 하기 힘든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제6공화국 출판업 증상은 국보법 제73항(친양고부)과 제5항(이적표현물제작)에 관한 것이라 5공화국 7년간 출판인 구속자는 33명인데 비해 6공화국 2년6개월간 구속자는 88명이 이른다. 87년 이후 시기에는 북한바로알기운동으로 비롯한 북한관련 출판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고 88년에는 보안사요원들이 1천여개의 서적이 영장없이 몰수당해 도서출판 소나무의 '보안사'라는 책을 압수당한 예도 있고 88년 6.7월호 '신앙'에 실렸던 황석영씨의 '사람이 살고있었는가'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실린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씨를 국보법으로 구속시킨 바도 있다.

△대학원생과 국보법=이한기(서울지역 대학원생협의회 건국위원장) 대학원생은 89년 문교부의 대학원생 이원화 방침인 '5.6조' 이후 가시화 되기 시작, 90년 2-8월까지 1백1명의 대학원생이 수사대상으로 오르고 그중 75명이 불발연행되거나 구속, 수배되었다. 탄압의 양식은 크게 기사를 빌미로 필진, 기자를 국보법으로 구속하는 양식, 학생과 학교와의 마찰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 89년 5-6조와 같은 구조적 편을 통한 탄압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학원생은 계속되는 연탄탄압에 맞서 '서연'을 통한 조직적 대응, 학우대중들과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각 학교별 수행,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해 싸워나갈것들을 대안책으로 간구하고 있다. (최유복 記者)

'민중해방운동사' 집필관련 강릉교도소 수감중인 이재화씨 최후진술 중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듯이 저와 저의 글들을 단죄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세운 수사기관과 저의 주장 사이에는 엄청난 벽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관에 수 서로간의 높은 벽과 배울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6.25 당시 미국은 한국 땅에 태평양전쟁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하였는가 하면 세균까지 감행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 죽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나 잔인한 행위는 만이 온전한 민족사가 된다

는 것입니다. 둘째, 일제의 식민사관과 타율적, 사대주의적 역사인식을 없애고 자주성과 자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집필을 한 것입니다. 일제가 강요해놓은 식민사관은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식민사관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진실 그대로 드러내어 민족적 자존심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 만큼 좋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문재삼은 것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 후 우리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타협하고 변절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을 일제의 정용으로 내몰고, 우리의 처녀들을 일제의 성적노획기로 동원하게 하는 데 공을 세운 범죄자들이 해방이 되자 버젓이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 지도층으로 행세하게 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항상 정의를 패배한다는 허부추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 우리의 해방은 남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투쟁과 피에 의해서 쟁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이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민족장래위해 '민·해·운·사' 집필 수사당국과 엄청난 벽 느껴

은폐하고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만 과장, 확대하여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의 글이나 주장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예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첫째, 기존의 어중이떠중이 역사에 의해 왜곡된 민족해방운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지배세력이라도 그들이 일제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을 참여했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역사에 남겨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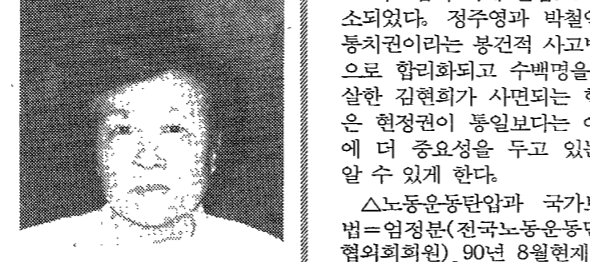
첫째, 제가 항일투쟁투쟁을 독립운동의 주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일시 정부의 활동을 주류로 인정하는 기존의 학계와는 달리 저는 30년대의 항일투쟁투쟁을 우리민족독립운동의 주류로 규정했습니다. 그 항일투쟁투쟁을 이끌었던 중심인물들이 해방 후 북한의 정권세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에 입각해서 볼 때 항일투쟁투쟁은 민족독립운동에서 가장 큰 줄기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저는 항일투쟁투쟁의 진통을 귀중한 전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그 전통을 강조한 것은 먼저 해

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정세사관, 타율성관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혁명전통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서 기존의 선입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냉철적인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백만 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과 범민족 통일협의회가 끝났고 이제는 통일촉구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등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 5공시절보다 2배가 넘는 구속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그 탄압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지난 10월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구속방북인사후원협의회, 출판업협회, 출판업협회, 서울지역대학원생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가 서강대(K302)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각 단체와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수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각 기조발제를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문제와 국가보안법=서준식(민·가·협 강사 가족협의회 회장) 1990년 10월 현재 장기구금 양심수는

재판보며 자식이 옳은일 했음 느껴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싸우길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있는 남편, 자식들의 용기, 자식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한다. "국보법 철폐운동"이 확산되는 요즘 민가협공동의 장 유선근씨를 만나 공평과 민가협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보법으로 인한 수많은 양심수들이 생겨나는 근본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정권의 장기 집권유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모든 재야운동권 세력을 짓누르면서 장기집권을 계획하는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민가협 가입 가족들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민가협에는 어머니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정치성을 띠고 활동한다기 보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단의 자식, 외할머니에 역할을 두고 활동하며 구속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



유 선 근 (민가협 공동의장)

이 큰 어려움입니다. 또한 지방교도소들 멀리 움직여야 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인력동원에도 큰 어려움이 뒤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실의에 빠져있다고 느낀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하길 바랍니다.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함께 출출해까지 우리학생들은 용기를 잃지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

동학로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무역학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 어떻게 산업안전공학과 학과장이 됐는지 물어봅니다" 지난 11일부터 안산 산업안전공학과 학과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동상에 돌입한 학생 60여명이 학교측과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저희는 산업안전공과과가 있는 전국6개대학의 3-4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 체계에 맞지 않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며 김장표(산업안전공과)교수는 교과과정 재편의 시급함을 말한다. 산업안전공과과는 지난해 신설돼 현재 최고 2학년이 학생수가 60여명밖에 되지 않고, 교수 또한 전공교수 1명 시간강사 3명으로 교수층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문과 투자

"시간표에 '안전공학 I'이라는 수업은 반드시 갖다나 안교수는 저희들과 한미다 상의없이 통제학을 강의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3일 밖에 출근하지 않은 분이 교과과정 재편에는 모두 출근했다고 나와 있어 이상합니다" "한반의 강사는 방학중에 독학을 해 전공이 아닌 과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저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할 정도로 교수님들의 자질 또한 의심스럽습니다"라며 진공에 맞는 교수가 한명도 없음을 되풀이 말하는 李某은 "우리학교의 행정은 실습실 및 교수들 충원한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신입생의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교수들 충원하고 실습실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신설과의 문제점을 함께 말한다. "투자없는 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동국의 학풍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많은 투자와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진호 記者)



대우가족

“작은 손길 하나도 고귀한 이 가을에...”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이면 부지깥어도 덩벙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녘에서, 밭에서, 산골에서... 우리의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용직임들로 부산해집니다. 애써 심고 정성들여 가꾼 땅의 결실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다며 풍요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모와 이 땅의 평범한 많은 이들의 삶의 철학이 없었다면 가을의 거두어들이던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적인 삶은 물론

고추나 참깨, 밤,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바닷에서 건져올리는 해산물들... 그는 그 하나도 소중하고, 수확을 위한 그는 손길 하나도 더 없이 고귀한 가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그 귀한 손길들에 힘을 보태고 또한 내가 거둬야 할 수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함께하는 이 땅의 어우러진 삶속에—

대우가 있습니다.

사회기회

심층분석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평가와 전망

UN 단독가입 여부 3차회담 변수

정치·군사문제 이견 좁히지 못해 성과 미흡 민주 정부 수립이 통일 실현 비탕임을 인식해야

새삼스럽지만 남북관계의 2중구조 이면 회담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주목할 사항이 보인다.

첫째 북쪽이 제안한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과 남쪽이 제안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의 내용은 대부분이 1차 회담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남쪽은 북쪽이 1차 회담에서 제시한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서 "국제정치무대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고 협력한다"는 제6항을 받아들여 유엔가입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이고, 한편 북쪽도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남한의 실정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냈다.

둘째 강영훈 국무총리와 김일성 주석의 면담과정에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엿보인 점이다.

이번 남북 대표단의 판문점 도착장면에서 북쪽이 상호실체의 인정과 존중 등 남북관계개선에 신축성있는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은 남쪽이 북쪽의 변화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불가침 선언안을 제안한 연행록 총리의 언설에 대해 남쪽 대변인은 '진전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남한쪽이 북쪽의 안을 보고 내용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도 북쪽의 불가침선언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고 안 자체에 대해서는 북쪽도 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명칭'의 차이와 '절차'의 문제를 들어 아무런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남북관계의 2중성이 다. 마치 일방적 선언만이 있고 최종 합의는 비켜가는 역대 남북관계의 모습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세계지 선결조건의 문제

지난 45년간 아무일 없이 있었던 유엔 동시 또는 단독 가입의 문제가 남북이 새로운 관계개선의 기로에 있는 지금 주요한 문제가 되고있다. 세계지 선결조건 가운데 어떤 것이든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유엔가입 보류를 북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의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가침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다. 남북의 '실체'들간에 상호 무력사용의 포기를 확인하는 것은 유엔 단독 가입이나, 미군 주둔, 군축 거부 등의 명분이 상실된다. 이는 분단고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가입을 통과하고자 하는 남쪽의 전략이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수정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유엔의 단독가입으로 연계될 국제정치에서 남쪽의 선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불가침과 동시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분단고착화는 '실현'될 수도 있다.

다음, UN 스피리트 문제는 남쪽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문제이다. 한-소 수교,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N 스피리트 문제는 남북 단독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는 국내정치적 심각한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세계 자본체제의 투자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속화한 남한의 경제성장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견제와 조정, 그리고 후발자본주의국가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경쟁과 추월에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급의 진출은 노동운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이는 비생산적 투쟁, 파업 등으로 자본축적의 위기를 갖게된다. 여기서 경쟁성의 위기를 받는 권력이 타하는 효율적 노동통제는 여전히 반독이데올로기이다. '범외의 경쟁'에서 주요한 범주는 노동운동과 제반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방북인사의 석방은 통치이데올로기의 붕괴를 의미한다. 통일운동의 석방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남쪽의 입장은 정상회담의 당근과 통치이데올로기의 재확에서 이루어낸 절충점이다. 임수경 학생과 문규현신부의 석방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요원한 일이다.

고위급회담의 전망

북쪽이 제안한 세계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될 고위급 회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문규현 특사가 89년 4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공산당 정권하에서 남한을 추진시켜 남북사회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와 다방면



○제2차 고위급 회담은 일방적 선언후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남북의 벽을 또 다시 느끼게 했다.

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합의된 바 있다. 따라서 북쪽은 추후교섭환경, 범민족을 약화 등과 같은 교류와 고위급회담을 방해하고 있으며 남쪽 역시 '3통협정'의 근거가 되는 관주도의 교류를 계속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은 계속 진행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볼 때 내년에 열리는 UN 스피리트 혼란전까지 고위급 회담은 진행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남한이 유엔에 단독가입 신청을 하느냐이다. 아직 남한 당국은 유엔 단독가입신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이미 유엔단독 가입을 위한 절차는 시작되었으며 단지 시기의 문제만이 남이었다. 유엔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남북의 관계가 다시 냉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의 축적을 기다리는 것이 남한 당국의 입장이다.

일방적 선언은 있되, 최소한의 합의가 배제된 남-북관계는 고위급회담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방적 선언의 내용이 '남북불가침 선언'의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최소한의 합의가 국내의 정세에서 강요되고 있다.

축구경기와 예술공연에서 북쪽사람의 통일열기가 전달되고 남쪽에서 통일열기가 범민족대회 이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동-서독의 통일 내용은 내용이라 어렵든 남북 역시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객관 정세는 예정된 3차회담에서 대이상 일방적 선언이 아닌 최소한의 합의를 요구한다.

여기서 합의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지 선결조건의 문제이다. 그러나 남쪽의 입장을 볼 때, 세계지 선결조건 중 어느하나 양보할 수 없다. 관심의 초점은 오히려 북쪽이 남쪽의 세계지 선결조건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교류를 진행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남쪽이 어떠한 카드를 쓸 것인가, 세계지 선결조항에 대한 일방적 거부가 아닌 유보이든 다른조치이든, 하는 점에도 주목된다.

그 어떤 내용으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분명한 사실은 통일의 성사여부는 민주정부의 수립에 있다.

통일이 단순히 정권의 차이에 머무를 수 없듯이 통일은 모든 민족구성원층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정부들간의 전리품일 수 없다. 따라서 분단은 극복할 국내 민주정권의 총의를 모으는 일은 민주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결과는 없지만 계속된 통일이야 하는 고위급 회담을 보면서 통일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민주정부의 확대된 형태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김형민 (전민련 편집부장)

최근들어 한-소 관계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 듯했지만 이처럼 양국 정상의 만남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은 예견치 어려웠던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면 예상밖으로 이루어진 조-일 관계 개선은 공세적인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의 '사전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교차승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최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서 두드러진 변화로는 경제협력 실리 우선주의가 이념중시의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제치고 급속히 대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이 최근들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교차승인'을 지지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요컨대 교차승인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상징되고 있는 만큼 소련의 교차승인 지지가 얼마나, 이같은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 한반도에서 군축과 평화정착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현 제로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소련만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대한반도정책 변화(교차승인 지지)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지배전략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을 가져다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문점에서 한-소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거부는

조-일 관계 개선 움직임의 의미

단순히 한-소 관계 개선이 남북한의 교차승인을 결과할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소련의 정책변화에 따른 미국과 남한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최근들어 활기를 띤 조-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의 '결과물'

통일에 유리한 정세조성이 주목적 북한을 미-소 견제수단으로 활용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교차승인보다는 8-15이후,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건설한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동독과 마찬가지로 "붕괴되고 마느냐"하는 두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세가 "교차승인이 될 것이나 안 될 것이나"라는 식의 '교차승인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남한에게 흡수통합되고 마느냐" 아니면 미국과 남한 정부의 공세를 뿌리치고 계속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할 수 있느냐"라는 '흡수통합의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될 사실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보도



를 짐작하게 해준다. 요컨대 조-일 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과 남한 정부가 적지 않게 당황했던 이유는 북한의 고립과 개방화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더욱 공세적인 성격을 띠면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라는 '일본 카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고립과 개방화 압력을 벗어날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성격을 지닌다. 우선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고립화에 대한 미국과 남한 정부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대이산 소련과 중국에게 기대할 것(중국의 의사는 지난 9월

팔레스타인 민족혁명

지난 10월 8일 예루살렘의 탬플 마운트에서 이스라엘 경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23명이 학살당하고 3백명이 부상당한 최악의 유혈참사가 발생했다.

이로써 87년 12월 이래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3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무장 독립투쟁을 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죄값으로 시온주의의 실연 즉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했다. 이 방면은 향후 유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항구적인 전락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묘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수천년간 자기 땅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음으로써만 가능했다. 결국 서방인들은 자신들의

시온주의가 낳은 만행

인티파다(아랍어로 '봉기'라는 뜻)는 약 8백명이 숨지고 5만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더욱 가열차게 불붙게 되었다.

비무장의 아랍인중에 대한 이스라엘 경찰의 발포는 범죄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우기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미국에 의해 성립되고 지탱된다는 점에서 이번 학살의 책임자는 미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차대전 중 나치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은 서방세계에 심각한 도덕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수백년간 반유대주의의 공범인 그들은 나치의 범죄행위에 연대책임

국군보안사령부

모든 권력은 보안을 통한다. 국군보안사령부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권보안'을 위해 철저히 가리워졌던 보안사의 정막을 벗긴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만 11

주간 말
● 정기구독문의 778-8523 4
● 일시특가 4,000원

제국주의의 언어조작술

김성수의 천일행각

노정권의 MBC노조 와해작전

민족문화 평단에 대한 전면비판

나에겐 아직도 감아야 할 빛이 있다

전문수목 윤석양

'보안사의 뒷'에 걸려 동지를 팔아야 했던 윤석양 이병. 보안사 서빙고에서의 80일 체형기를 전면계재한다

박태준의 대권선언

본지 단독인터뷰

'철의 사나이'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언론매체에도 일직 인터뷰에 응하지않던 그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대권대전 의사를 스스로 내비쳤다

최초공개

보안사·안기부의 야권통합대책반

양대석

보안사 민간사찰 개인별 기록카드

모든 국민을 감시해오만 안심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여기 보안사의 불법적인 사찰기록을 기증사항인 삭제한 채 원본대로 완전공개한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은밀하고도 집요한 사찰활동이 얼마나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민주인사들에 대한 저들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고 악의에 차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원본 완전수록 ●

학술상 특집

노동권은 학원침탈 즉각 중단하라

제28회 동대신문 학술상 사회과학분야 본상

남원시 상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I. 서론

1. 연구 목적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능중에서 상업적기능은 중요한 것으로 여러가지 입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상업활동은 도심지에 집중하고, 또 어떤 활동은 주변이나 주택지에 입지하여 임지하며, 또 어떤 활동은 집중 입지하는가 하면 또 어떤 활동은 분산 입지한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인 남원시의 변화상을 정밀조사하여 가로의 이용상태, 상점의 입지, 고도, 이용 및 기능구분을 행함으로써 학원침탈은 상가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도시적기능의 기능구분과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남원시를 연구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로서 담사를 통해 서 알아보기에 알맞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연구범위는 행정상 즉행정동, 학교동, 원정동등에 해당하는 용성로와 춘향로 지역으로서 남원의 중요 상가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가로로이다. 조사 기간은 1990년 2월 11일~20일까지 4일간 걸쳐 상가조사를 하였으며, 방법은 주요 가로망의 양측 가로변에 분포하는 점포의 업종과 분포 상태를 조사하여 지도화한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상가의 기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남원시 상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지표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가로별, 기능별 건물 층별로 분류하여 상업기능을 분석하였고, 분포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형 최근린 분석(Linear Nearest-neighborhood Analysis)을 행하였다.

3. 상가의 입지 경향

상점의 종류와 업종의 구성상태는 상가의 질적인 문제를 결정하며 대상 고객의 범위와 구매능력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상점의 집적, 분산 그리고 경합 보완관계까지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상점수는 조사된 전체 상점수 762개중에서 7.9%가 분포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選買品 판매 기능이 36.8%로 제일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잡화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기능이 28.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앗간과 같은 업종은 주변의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원지역 군내버스가 출발하는 이 가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가로2 지역

용성로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로의 점포는 63개로서 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선매품 판매 기능이 50.8%로 다른 기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구성하는 업종중에서 어느 한 업종이 집중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능과 금융 업무관련 기능이 각각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능중에서 예식장은 다른 가로에 비해서 이가로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가로3 지역

본 가로의 점포수는 80개로서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원이 9개소로 본 가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본 가로도 중심성 상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점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로3 지역과 함께 남원의 중심상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가로5 지역

용성로가 시작되는 가로로서 춘향로와 접해 있지만 상업가로서의 발달은 미약하다. 본 가로의 상점수는 6.2%가 분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공장과 자동차 부속품점이 혼재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남원 시내 주요상가에 진입하는 가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기계, 부속품점은 대부분 주차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과 같은 서비스시설을 옆에 두고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6)가로6 지역

본 가로는 여수 순천 방항에서 진입하는 직행버스와 통하는 가로로서 직행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가로의 기능을 살펴보면 식료, 잡화점과 기계 기구부품 판매점이 다른 가로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외버스의 시범버스 정류장이 본 가로에 위치하고 있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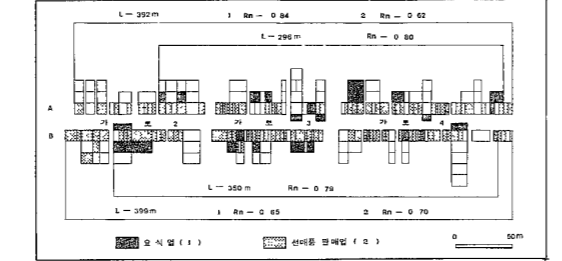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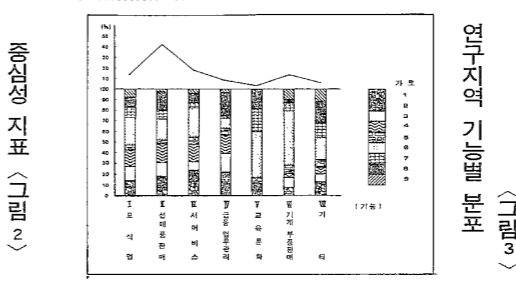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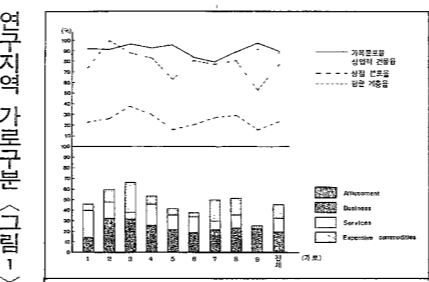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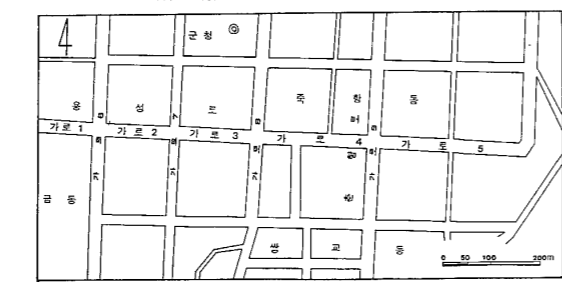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고 어지러운 삶의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향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인 가을이다.

관광도시에 걸맞게 선매품 상점육성 필요



지역	상점밀도	상점종류	상점규모	상점기능
1	222	924	924	23.8
2	240	921	921	25.6
3	301	965	965	24.1
4	300	928	928	21.7
5	261	958	958	20.9
6	838	843	843	21.2
7	271	801	801	18.8
8	360	891	891	20.7
9	175	977	977	16.5
전체	2,664	91,1	90,0	24.4

업종	업종비율	업종비율	업종비율
1	23.8	23.8	23.8
2	25.6	25.6	25.6
3	24.1	24.1	24.1
4	21.7	21.7	21.7
5	20.9	20.9	20.9
6	21.2	21.2	21.2
7	18.8	18.8	18.8
8	20.7	20.7	20.7
9	16.5	16.5	16.5

“아직까지 상가가 혼재된 전원도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연구지역의 전체 점포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양복, 양복점이 18.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운동구, 비디오 등을 포함한 오락용품점이 1.4%를 나타내고 있다. 상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업종의 구성비율뿐만 아니라 업종별 입지의 지향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입지형태는 집성형, 국지형, 집적형, 산재형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입지경향을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지역에서 상점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III. 상가의 기능별 분포

1. 가로별 기능의 구성

1)가로1 지역
평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통과하는 가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빈번하며 남원의 군내버스 정류장이 이 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행인은 많지만 남원의 중심상가인 용성로의 번두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발달은 미약하다.

2)가로2 지역
용성로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로의 점포는 63개로서 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선매품 판매 기능이 50.8%로 다른 기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구성하는 업종중에서 어느 한 업종이 집중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능과 금융 업무관련 기능이 각각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능중에서 예식장은 다른 가로에 비해서 이가로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가로3 지역
본 가로의 점포수는 80개로서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본 가로는 여수 순천 방항에서 진입하는 직행버스와 통하는 가로로서 직행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가로의 기능을 살펴보면 식료, 잡화점과 기계 기구부품 판매점이 다른 가로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외버스의 시범버스 정류장이 본 가로에 위치하고 있기

연구지역에서 상점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용 또한 적절한 편이 아니라 결론에서 도시의 개발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학문의 실용화를 내다보는 오늘날의 사조에도 부합되는 우수한 논문이다.

부족한곳이 보이고 세계 오자가 더러웠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학문의 실용화를 내다보는 오늘날의 사조에도 부합되는 우수한 논문이다.

연구지역에서 상점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손원수의 '남원시 상가의 구조 및 기능'은 南原을 사례지역으로 삼아 중소도시가 갖는 특색을 연구와 기능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2·8km에 달하는 중심가로로 따라 726개의 건물이 대한 기능과 고도를 일일이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자료로 삼아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다시 중심성과 분산성에 맞추어 입지 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건물의 고도와 기능을 지도화함으로써 분포상태의 일목요연한 파악이 가능했다. 현 지조사와 자료처리의 방법, 지도제작의 기법과 결론을 유도하기까지 논리적인 과정에서 학부생의 논문으로서 수준급이다. 참고문헌의 인

우리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권용석)논문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논문의 구성도 적절하며 문헌조사가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한편, 논문작성에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주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기존 문헌을 '재검토'하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고, 특히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서 논리의 비약이 심한 것이 거듭되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상점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지역에서 상점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귀금속점, 오락용품점 등이 집성형 상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지형 상가는 철물점, 건축자재, 한약점 상점들이며 음식점, 양복, 양장점, 보건의료업종은 집적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집적형, 이발소, 일용품점 등은 산재형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성형, 집적형 상점은 도심지에 산재형은 주택근권에 국지형 상점은 그 중간 지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경우는 대우의 사례연구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남원시가 전원도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사평

오홍석(지리교육과 교수) 한봉희(법학과 교수)

박강식(경제학과 교수)

심사평

보도논평

노정권은 학원침탈 즉각 중단하라

단대축전 오늘부터 개막 학생회 사업의 기반다져

참여 공간 넓혀 연대의식 고취

1년동안의 학생회 사업을 정리하며 내년의 올바른 사업과 품 구현을 위한 서울캠퍼스 각 단대 축제가 사범대 학림축전을 필두로 내달 6일까지 교정에서 열린다.

문과대 '명진학술문화제'가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첫째날(5일)은 개막식과 마당극이 명진관 앞에서 열리며 둘째날(6일)은 중앙정에서 영화상영이 있으며 이어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셋째날(7일)은 중앙정에서 노래한마당이 열리게 된다.

사회대학생회 주최 '90동급축전'이 학림회관동의 대강당

및 팔성화와 1년간의 행사를 마무리 한다는 취지에 오는 25·26일 양일간 개최된다.

행사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날(25일)은 오후 1시 동국관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어 100인 합창제가 사회학과 주최로 열린다. 흑백비독대회 잔치가 정외과 주최로 열린다.

둘째날(26일)은 경행과 주최 체육대회와 오전 11시 대운동장에서 각 학생회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동원퀴즈대회, 통일동서남북이행정학과 주최로 이어 이날 오후 6시 폐막식이 거행된다.

동과대 '중년제'가 오는 25, 26일 양일간 해화관 일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던 고추판매 자로전시회를 비롯해서 농대학회 전시회, 풍년문학상공모전, 전통대인의 공동노력으로 그려질 '결구' 그리기 등 각종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 모습

'역사...' 범죄와의 전쟁선포어후 예상대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그들. 그러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동쳤는가. 힘보다 더러운 군화발로 우리를 밟았다면 우리 이 동에서 역사를 앞당겨 백마를 탄 초인으로 서리라.

(글=김영만기자, 사진=이병민기자)

한국문학 학술회의 '근대문학사상 전개' 주제

한국문학연구소 제10차 한국문학 학술회의가 지난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적 문학사상의 근대적 전개'의 주제로 학생-대학원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L501)에서 열렸다.

李炳基(국문학)교수의 사회

선거투쟁위원회 '여론분분'

○...갈비뚤듯 학우들이 줄 줄이 구축되는 동학의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이 출현한다고 해서 긴장된 분위기.

알고보니 총학생회에 즈음하여 모습을 드러낸 '선거투쟁위원회'가 그것.

선투위에서 제기하는 원칙 조차 이미 있는 '선관위'의 역할이고 보면 11월 투쟁에 지금의 동학에 역할을 집중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11월 총선거 위원회'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적성검사 실시 학생생활연구소서

학생생활연구소는 지난6일 적성종합검사의 제2차 집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집단검사는 적성종합검사, 인성검사(MMPI), 흥미검사, 지적능력검사(IQ Test)로 나뉘어 취업문제에 대한 경험 축적, 성격-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설정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각 학년별 검사인원은 4학년 1백40명, 3학년 10명, 2학년 1명, 1학년 1명 등 총152명으로 검사자의 대부분이 4학년이었다.

한편 이번 1,2차 검사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산상의 제약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검사소의 취약성 및 홍보부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 등이다.

통일 "남·북이 따로 없었다"

삼엄한 감시속...열기 '최고조' 동포애 느낀 '조국은 하나' 확인

통일축구 취재기

통일로 가는 함성은 뜨겁기만 하였다.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벌어진 '통일축구' 서울경기대회는 분단 46년의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하나'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날 경기는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 '화이팅'하는 모습 속에서 양선수들과 관중은 삼위일체가 되었으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뜨거운 감동이 어우러진 한판이었다.

이날 경기는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 '화이팅'하는 모습 속에서 양선수들과 관중은 삼위일체가 되었으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뜨거운 감동이 어우러진 한판이었다.

그러나 미러부터 판정석 5명, 골로 1명씩 배치된 보안요원(녹색 새마을보자 착용)과 경기장 주변 일대를 촘촘히 에워싼 전경들의 과잉방어는 당초 이날 계획했던 '전대협주최의 '국보법 철폐' '방북인사 석방' 등 민주화 요구를 사전 봉쇄한다는 미명하에 통일의 염원속에 있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찢어놓는 기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남·북 응원단이 함께 서로의 선수들을 격려하며 진행된 이날 90분간의 경기는 넘어진 상대선수를 일으켜 주며 주심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판정에 관계없이 페이퍼플레이 했으며 관중 또한 심판의 판정이 의아하거나 선수들의 파이팅이 부족할 때는 격려와 비판의 함성속에 하나된 모습을 연출했다. 전반 17분만에 남측 8번 황선홍선수의 헤딩골이 득점했지만 이후 북측선수들이 특유의 기회를 놓칠때마다 관중들은 탄성을 지르며 안타까워 했다.

이날 문익환 목사와 전민련 인권위원장 진관선님 등 민주인사들은 경기시작 2시간전에 미리 2층 24구역 17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에 있는 학생·시민과 통일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가 모두 끝나자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 주위를 돌았으며 이에 수반인 관중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파도타기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5분여간 뜨겁게 선했다.

한편 2층 21구역에는 북측 로동신문 리광진(45)자를 비롯한 중앙통신 기자 등 3명의 기자가 남측 시민들과 예기를 나누며 통일의 뜻을 피웠다.

여기서 리기자는 본기자로서는 짧은 인터뷰를 마친후 '민족 동맹에 주는 글'을 넘겨 주었다.

이런 축구대회를 보며 느낀 점.

=중앙선 하프라인의 벽이 이번 경기에서 작용하지 않았듯이 남북통일의 장벽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여기는가.

=90년대 안에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한다.

-취재기간동안 불편하지 않았는가.

=다른 것보다 남측의 언론 보도 태도가 불편스럽다. 올바른 보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역사의 주체는 바로 인민, 국민이 아닌가. 역시 통일의 대업도 인민, 국민에 의한 스스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민족 동맹에 주는 글" 역사적인 북남통일축구, 서로가 내쪽 내속이 따로없이 한데 어울려 오고거기 축구경기를 보니 바로 저것이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서로 자유롭게, 제한없이, 구수없이 오고가는 통일의 그날이고 그것을 눈앞에 보는 듯 싶다.

여기에 불현듯 터져오는 생각도 있다. '전대협'이 발기하고 북의 대학생들이 호응하여 회담에 북의 김일성 중앙대학의 한 학생이 썼던 시구절도 생각난다.

시에는 뽕이야 그물에 걸려있어서서 북과 남의 형제들이 서로 열매안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회포를 마음껏 나누어 고사 하는 뜨거운 열유의 강, 동포애, 통일열망에 불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었다.

오늘의 통일축구를 보며 평양에 이어 서울에서도 똑같은 심정을 뜨겁게 느낀다. 내가 만난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승부가 무슨 상관인가 서로가 어떻게 화목과 통일의 의지를 다지니 얼마나 좋은가.

승부보다는 통일축구라는 그 자체에 나는 관심이 더 높다고 할 만했다.

그렇다. 북과 남 사이에 장벽은 가로막혔어도 하나의 밭 줄들이고, 북과 남의 겨레의 가슴속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으며 오직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앞당겨 1990년대에는 기이 통일성업을 이루고야만 불타는 열의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다.

나는 남조선인민들의 이 뜨거운 통일열의를 북의 동포들에게 한시바빠 전하려 한다.

(取材部)

백상체전 31일부터 열려 화합의 장마련,경주는 전경 체육대회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 '백상체전'이 동아인의 화합과 전진을 목적으로 오는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첫째날은 축구 농구 씨름경기가 있고, 둘째날은 축구 여자 축구 배구 마시지, 30초초판 유투를 많이 마시지 등의 인기목 경연대회, 동학인 노래 한마당이 있게된다. 마지막날에는 오후 3시 대운동장을

출발하는 전통적 행사인 동아인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경주캠퍼스 '90은방울 13한 돌림말이 '통일백상대동제'가 지난6일 개막식 오늘(24일) 오후 2시 전경-학생 체육대회에 이어 오는 25·26일 양일간 본선 및 1차의 행사가 펼쳐진다.

25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대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종목 준결승 및 결승, 농구 친선경기가 펼쳐진다. 다음날

에는 오전10시 통일백상 남·녀 친화장사 씨름대회, 오전11시 축구대항전, 오후 5시 시상 및 폐회식등의 순으로 열린다.

또한 1차의 행사 및 문화행사를 보던 도서관(25·26일) 상정탑(25), 백상가요제(25·26일), 체육관, 전통문화(28일, 오후 3시, 추야원) 통일음악회(24·25, 26일, 녹야원사거리) 민주민속신기독대회(25·26일 녹야원사거리) 등이 열린다.

환상의 6공 노피아

○...No(?)대통령의 '별과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닷새도 안돼, 그것이 누구와의 전쟁인지 그 해석이 분분해졌는데.

지난7일 정부에서 70여명이 참가한 가부에서 정부는 현대판 파소비를 방불케하는 백골단-전쟁 4백여명을 동원, '학원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느낌.

또 지난9일 있는 가부에서는 6공이 자랑하는 케퍼포크가 정문앞으로 진입, 10·13선언 기념불꽃놀이를 성대

내침탈이 자행되자 이에 격분한 일부 학생이 지난 20일 오전7시쯤 동대입구역의 공원 파출소를 습격, 전소시켰다.

'별과와의 전쟁'으로 공권력의 학내침탈이 합법화(?)되더라도 본교와 남산등산로, 장충단공원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원 파출소의 습격은 '중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화를 이'하는 꺾바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않아

요'라며 가우뚱.

북한선수 응원단 '찬양고무'라

○...제2차 남북축구가 지난 23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성대히(?) 치러졌는데...

이번 대회는 남북통일의 토대를 이룰수 있다는 분석과 반공의적 정세를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분분해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 예매표중 20%를 기관요원

선거투쟁위원회 '여론분분'

○...갈비뚤듯 학우들이 줄 줄이 구축되는 동학의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이 출현한다고 해서 긴장된 분위기.

알고보니 총학생회에 즈음하여 모습을 드러낸 '선거투쟁위원회'가 그것.

선투위에서 제기하는 원칙 조차 이미 있는 '선관위'의 역할이고 보면 11월 투쟁에 지금의 동학에 역할을 집중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11월 총선거 위원회'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학생회 강화- "위원회만 건설한다고 과연 가능할까..."

히(?) 치부되었고

이에 이를 보도하는 민자 방송국 앵커曰 "이것이 No(?)대통령이 꿈꾸는 육공 노피아(?)입니다"

公權力 사라지대

○...지난9일 공권력의 학

... 이에 대자보를 보던 특학우 "비록 파출소가 공권력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번이 습격한 파출소는 학생운동단합에 있어 공권력(?)에 불과할 뿐인데 전소까지는 일부 과격학생의 오류가 아니었을까

(?)에게 할애했다는 소문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

이에 본 회전문대주 "국보법을 적용한다면 대를 많이 한 한국선수에겐 무공회장이, 북한편을 응원한 관중에게 이적단체 찬양고무죄로 구속될수 밖에 없겠네요"

거의 중립을 위한 특정우보를 지지하는 무쟁력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기도 한 실정.

이에 본 회전문대주 "위원회만 건설한다고 투쟁이 잘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靑雲의 꿈...

코리아헤럴드學院을 거처나간 많은人材들—

外交現場에서, 貿易戰線에서 尖端技術分野 등 世界要處에서 코리아의 名聲과 함께 自己의 役割을 훌륭히 해내고 있음은 오로지 外國語能力이 그 바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헤럴드學院에서는 學校에서 배운 外國語入門課程을 토대로 어떤 環境에서도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實力을 養成하여 名實相符한 能力者로서의 抱負를 實現시켜드리고 있습니다.

雄志의 나래를 활짝펴고 푸른 未來를 향해 지금 곧 첫번째 關門인 코리아헤럴드의 門을 힘있게 여십시오.

● 코리아헤럴드 紅髮 ● TOEFL 聽解반 ● 심문중합영어 · 기본영어 ● TIME · Movie English ● Vocabulary 22,000 ● 영어실력기초 · 영식문 ● 동시통역대학원입시반 ● 영문해석 · 기초영어 ● AFKN 스크린 합동

The Korea Herald · 内外經濟新聞 直屬

코리아헤럴드 학원

지하철 유리로 입구역(두산B/D 건너편)
757-0419-0420 (수시접수)

「반쪽英語 반쪽人生」

반쪽은 반쪽밖에 될수 없습니다. 더욱이 반쪽 實力으로는 절대로 雄飛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청운의 포부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코리아헤럴드직영 외국어학원 과 어학연수원에서 실현하십시오.

● 러시아어 ● TOEFL 종합반 ● 한국어

※ 관공서·기예체 임직원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 및 종합평가도 해드립니다.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중구회현동3가 1-12(본사4층)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56-7711(교) 483.484

교양문화

노정권은 학원침탈 즉각 중단하라

'성차별' 당연한 것 아닌 깨뜨려야 하는 것

영화감상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자본주의라는 틀에서 당하는 성의 모순을 다루어 낸 영화는 무수하게 제작되었다. 하늘의 절반으로 존재하는 여성은 실제로 완전한 인간이라서라기 보다는 반쪽인간으로 취급당하고 이곳저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가야 했다. 계급사회가 시작되면서 생겨난 성적 억압은 성의 차별로 이어지고 갖가지 여성의 고통을 양산시켜냈다. 여기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오랜역사의 세월에서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성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여성을 억압시킨 도구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성의 문제



주인공 여성이 법정에서 행하는 최후진술은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땅의 상당수의 여성이 성폭행의 경험에 있는데도 현재 자기만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철저하게 감춰내고 부인함으로써 성폭행의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모든 것을 불사하고—자신의 행복마저도 바치면서—법정 투쟁을 벌여나가는 용기있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냉혹한 시선은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할 성에 대한 폭행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 또는 남성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여성, 남성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내가 만약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질문에 힘차게 고개를 내저으며 이 글을 마친다.

강민아
(사범대 국어교육과)

성추행의 수치심, 법정투쟁으로 극복하려해 '허사건' 소재로 여자라서 유죄인 현실고발

를 다룬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형상화시킨 영화작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특히 여성들이 성의 억압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주체적으로 깨부수어 아할 벽이라는 것을 차츰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성의 문제를 통해 현재 회황하고 있는 성폭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서든 쉽게 당할 수 있는 성폭행을 소재로 여성이 당하는 고통을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 가정의 주부가 남편, 아들과 함께 평범하면서도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다. 남편도 주부도 한 차례 결혼의 실패라는 경험을 갖고 있지만 현재에는 대체

로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그러나 우연적으로 담긴 사건에 의해 평온과 행복의 질서는 무자비하게 깨지고 만다.

주인공인 가정주부가 골목길에서 젊은 대학생들에 의해 성적 추행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을 내어 버린다.

이것을 일탄으로 이제 흐름은 여성이 자기방어의 형태로 혀를 깨물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으로 바뀐다.

주인공은 성적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혀를 깨문 것은 자신의 성적 수절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 결코 성폭행을 의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친다.

즉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대한 관심—단지 하나의 화제로서만 생각하여 구설수에 올라놓고 장난치는 등의 행위—으로 현재의 행복을 파괴당한다.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지난간 생활의 모습을 만인에게 까발림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와 한다.

법정투쟁에서 얻을 것과 현재 잃어가는 것들을 비교하며 주인공은 성은 함소를 하려고 결심했던 사실에 후회를 하게 된다.

'지금에 와서 왜 내가 함소를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와 같은 사건을 당하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당한 사건을 숨기라고, 밤에 호소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저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언제 부터인가 한국의 대통령하면 의례히 군정정도로 여겨질만큼 군의 정치개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날치기 통폐합된 군조직의 붕괴로 군의 구조가 육·해·공군에 나뉘어져있는 지휘체제를 통합, 합동군 형태의 합참본부도 개편되어 군의 정치개입은 보다 용이해졌다. 국가보위의 무력수단인 군의 정변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건군 이래 5·16, 5·17등 2차례의 쿠데타와 군출신의 현직 대통령까지 거의가 군인들이 대권을 장악하였다. △지난 물난리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던 사실과 정치개입은 군의 2중성을 표현한다하겠다. 그런가운데 윤석영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나타난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금 군의 권력남용사실을 보여줬고 헌정권의 본질을 노출시켰던 일대충격이 아닐수 없다. 적으로부터의 국민보호차원으로 이 물정남기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세계질서의 재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재정립등 시

시위현장까지 총기를 들고 위협진압하여 무자비적 폭력 테러를 서슴치않고 자행한다. 시위진압행태도 과거 수비위주에서 공격행태로 바뀌는 김기위주의 포위 및 총기사용으로까지 변하고 있어 과연 법외정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수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다시금 경찰국가나 군국주의로 되돌아갈수로 야당의원을 국회에서 내몰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중시과반, 불가상승 등 반민중적태를 계속할경우 신뢰성은 떨어질수 밖에없으며 행정력의 전면적개편이 되지 않을경우 민중경대처를 분명하였다. 더불어 모든 경찰관서와 관할경찰관에게 증가유대를 전면허용했다. 단순

군의 중립

대의 흐름을 거슬리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헌정권은 언제든 군동원태세를 관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지난13일은 정국불안과 민심무마를 위해 '법외의 전쟁'을 선언하며 어떠한 폭력도 용서치 않을것이라며 강경대처를 분명하였다. 더불어 모든 경찰관서와 관할경찰관에게 증가유대를 전면허용했다. 단순

동학의 터

황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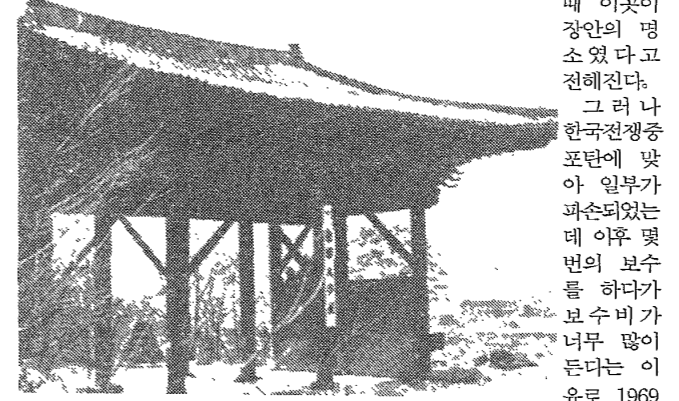
지금도 학생회관앞길에 주춧돌 자리만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이 자리에 '皇健門'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다.

원래 이 문은 평양에 있던 永樂宮, 즉 단군의 홍익인간을 기리기위해 고려때 세운 永樂宮이 있었는데 조선조때 손을 보아 崇永宮이라 불렀었다.

그뒤 순종의 순행을 맞아 새로이 정문을 보수한것이 皇健門이라 한 것이다.

이후 왜정시대에 조선의 유적 말살정책에 의해 일반인에게 불하할때는 데 당시 필봉에 있던 조계사에서 사들이 지금 학생회관앞에 복구를 했던 것이다.

옛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1946년 본교가 지금의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동대의 붉은문'이라하여 皇健門을 본교의 자랑으로 삼아 한



려있다.

또한, 皇健門을 사들이 조계사에서 종로구 신문로에 있던 경희궁(구서울고자리)내에 있던 崇政殿(지금의 정각원)을 팔아팔아 만해광장의 자리에 세워 '민족의 궁전'을 안팎에 과시했다 한다.

옛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1946년 본교가 지금의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동대의 붉은문'이라하여 皇健門을 본교의 자랑으로 삼아 한

"학우들속에 살아 숨쉬는 교지 되겠습니다" 질적발전을 위한 년2회 발간계획



1. 전형적인 학교의 홍보지, 문예지의 성격과 달리 출판한 교지 '동국'은,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대학인문의 시대적 임무를 방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를 맞는 길목에서 우리 '동국'은 진정한 1만 동국의 교지로서 변화된 내실있고 살아있는 선진예체로써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이제는 '동국'26집 발간 이후 본회의 자기반성과 함께 '동국'27집의 준비과정 속에서 내내 본회의 실천적 고민의 결론입니다.

우리 '동국'은 최근 몇 해동안 선배들의 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언제부턴가 교지가 많은 학우대중들에게서 읽히지 않고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교지의 심각한 문제는, 교지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 학우 대중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지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자기반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우들에게 우리 사회의 현실모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게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실천적으로 체화하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을 교지에 반영함에 있어서, 새롭게 교지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편집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지는 주로 학생운동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장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다소 개량적인 국면이 전개되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몰래 몰래 읽어야 했던 각종 원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변혁이론을 다루는 간행물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지는 보다 더 실천적으로 학우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 그것은 이론의 나열만으로 지면을 채우던 중전의 양식을 지양하고, 실제 현실사건 하나하나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편집노력으로 나타나야하고 학생회 강화에 복무해야 합니다.

'일반 학우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며 즐겨 읽히고, 그 안에서 정말 큰 효과 있는 선진선동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교지'

3.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위상에 맞추어 교지의 거듭남을 고민한 끝에, '동국의 발전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지 '동국'의 2회발간을 결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국의 내용과 체계가 새롭게 혁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2회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지2회발간의 필요성은,

첫째, 1년 2회발간으로 보다 넓게 시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정세분석 뿐만 아니라 학생회 사업에 대한 내용있는 준비(학생회와 연계해서)를 함으로써 학생회의 신뢰향상과 학우들의 역량집중을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째, 2회발간을 통한 대학원 생활과 교수님들의 논단을 더욱 자주 마련하여 진보적인 동국의 학풍을 강화, 확대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2회발간을 요구하는 위의 글을 보고 후시 '자주 내기만 하면 뭐하느냐, 내용이 좋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야 하겠습니다.

'동국'편집실에서 2회발간을 얘기하는 것은 '동국'의 체제와 내용, 그 형식 전체를 포함하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준비된 것입니다. 즉, 질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 그 발전을 위해 형식적 틀로서 제안된 것이 '2회발간'입니다.

이의 담보를 위해서는 본회 편집위원의 성실성, 실천적 고민과 이를 의화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교지, 좀 더 동국인과 친밀한 교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편집위원들에게는 동국인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비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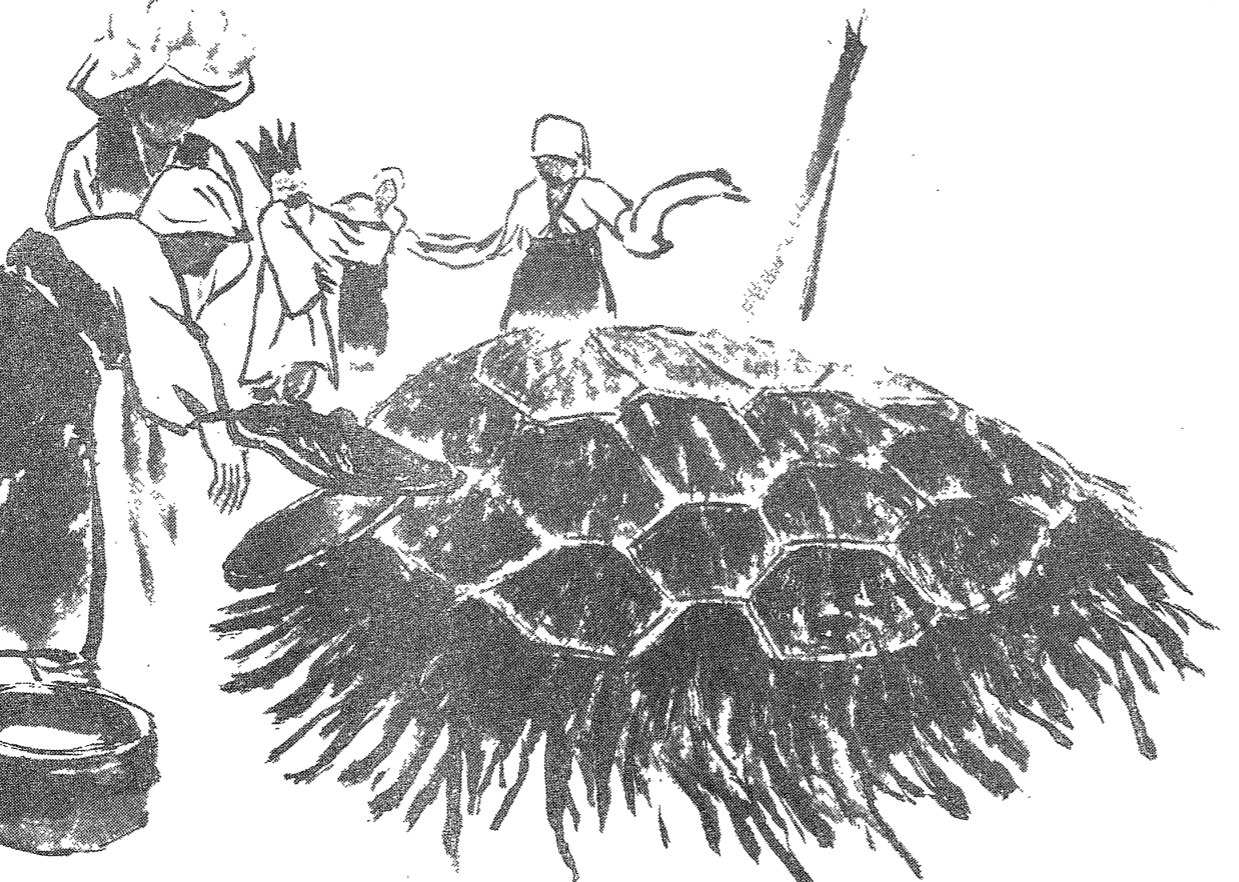
11월 중순에 '동국'27집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교지가 되겠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㉓ 거북놀이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 등 경기, 충청지방에서 한가위날 청년들이 펼치는 민속놀이. 수숫대로 거북모양을 만들어 사람이 들어가서 농악기에 맞춰 마을의 집을 돌면서 집집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동네의 잡귀잡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萬石거북아 놀아라!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면 거북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려라. 흥겨운 농악가락 하늘 높이 울려가니 팽파리세 번치고 장고, 북, 징, 소고도 세 번 쳐서 집주인 불라불고 무병장수 기원하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우리의 민족놀이는 민중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뛰어넘어 대다수 민중의 뜻과 맘의 결집이 풍년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놀이문화의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의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의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